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 (1) 제시문 (가)와 <표 1> 을 바탕으로 3·1 운동의 전개 양상을 추론하시오.
- (2) [그림 1]과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논의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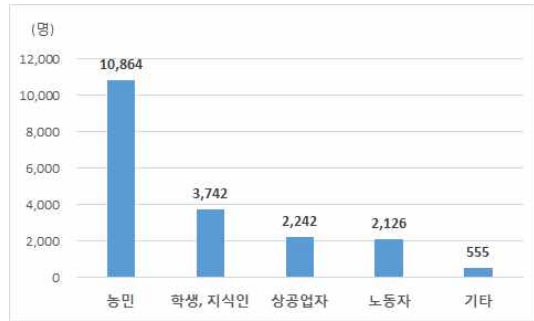
제시문 (가)

1919년 3월 1일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 대표들은 본래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하여 태화관이라는 요릿집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되었다.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후 거리에 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여기에 대규모의 시민이 가세하여 서울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이렇게 시작된 만세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상인, 노동자 등도 가담하였다.

만세 시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시위 양상이 달라졌다. 농촌의 만세 시위는 주로 장날과 장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 “왜놈은 물러가라”를 외쳤다. 일제의 헌병 경찰은 주동자를 체포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경찰 관서, 헌병대, 면사무소 등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 평화 시위는 점차 민중이 주도하는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표 1> 3·1운동의 시기별 시위 횟수와 투쟁 형태 [그림 1] 3·1운동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직업별 구성

시기	발생 장소 (곳)	투쟁 형태(건)			
		단순 시위	폭력시위		합계
			일제와 충돌	일제의 발포	
3.1~3.10	113	97	15	15	127
3.11~3.20	120	103	23	8	134
3.21~3.31	214	164	57	24	245
4.1~4.10	280	173	75	51	299



제시문 (나)

일제는 국권을 강탈하자마자 주요 자원과 산업을 통제하여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10년부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1910~1918).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합법적인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총독이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유지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했는데, 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웠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국가와 황실이 소유한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과 문중 공유지, 황무지나 미개간지 등이 국유지가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이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넘겨 주었다.

임야 조사 사업도 토지 조사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산림은 모두 국유림이 되었다. 농민들은 산림 이용권이 제한되어 풀이나 땔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화전민은 밭을 일구기 위한 별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문항 2]

- (1) [그림 1]과 <표 1>을 이용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 고용, 물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술하시오.
- (2)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제시문 (나)에 나타난 ‘세 가지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에 따라 서술하시오.
- (3) 제시문 (다)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고, 제시문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각각의 관점에서 논의하시오.

제시문 (가)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은 노동자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을 하였으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수출되었다.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를 내세워 기업과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노동자들은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도 행사하기 어려웠다. (중략)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었다.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급증하였다.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확대, 청년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 등은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시문 (나)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정하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방식이 상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각자가 투여한 노력에 비례해서, 또 다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적, 노력, 필요 가운데 무엇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정의 원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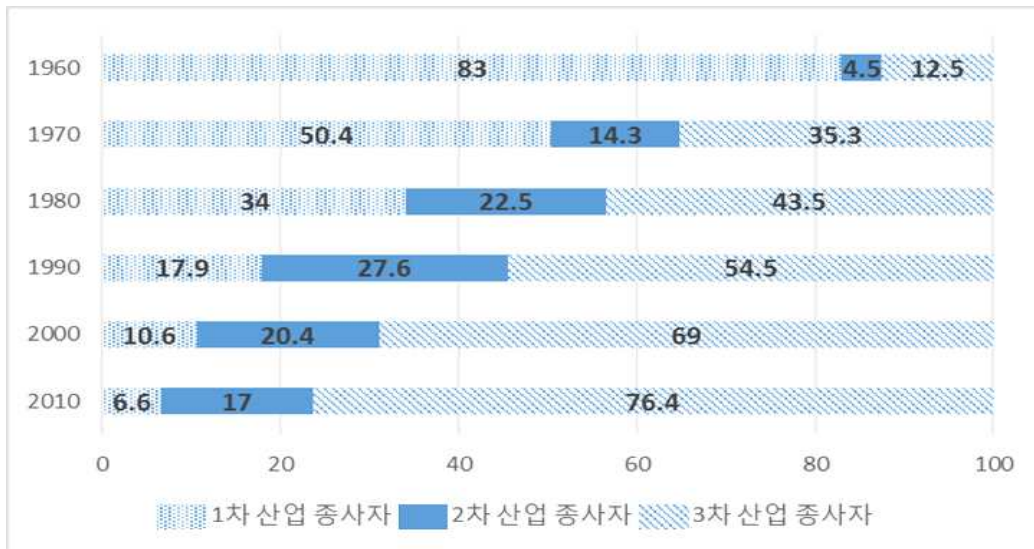
제시문 (다)

‘자유 지상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교환·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960-2010년)

(연도)

단 위: %



<표 1> 1960~2010년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만 원)	129	160	247	331	467	677	1,134	1,610	1,838	2,188	2,556
실업률(%)	8.1*	7.3	4.4	4.1	5.2	4.0	2.4	2.0	4.4	3.7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8.0	13.5	16.3	25.2	28.7	2.5	8.6	4.9	2.3	2.8	3.0

* 표시는 1963년 기준 수치임.